

월요논단



현해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전기차보다 중요한 친환경농업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제주의 맑은 공기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올해는 4000대 정도 지원한다고 한다. 개별 소비세도 낮춰 주고 혜택도 많다. 그러나 전기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환경오염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직접 불편하게 하는 것이 대기오염이다. 숨쉬기가 불편하고 뿌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줄 안다. 수질오염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바다가 오염되고 먹는 물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토양오염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

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 피해를 주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말로는 걱정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오염된 토양은 지하수 오염과 직결된다. 바람에 먼지가 날리면 대기를 오염시킨다. 한번 오염되면 해결도 어렵다. 그래서 외국은 토양오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토양오염을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약이다. 2년 전 도내 모 신문사 기사를 보면 충격적이다. 2013년도에 농약 사용량이 5000여t 있었는데 5년 사이에 1만1000t 이상으로 220% 증가했다고 한다. 1t 트럭 길이가 5m 정도다. 농약 1만1000t을 1t 트럭에 싣고 나란히 세우면 55km나 된다. 관덕정부터 1t 트럭을 나란히 세우면 일출봉을 지나 혼

인까지도 연결되는 양이다. 농약 1만1000t은 300mm 농약병 3600만 병이 넘는다. 300mm 농약병 지름은 약 7cm이다. 농약 3600만 병을 나란히 세우면 2500km가 넘는다. 일주도로에 일렬로 나란히 세우면 12바퀴를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농약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제주농업에 만연한 귀동냥 농법이다. 귀를 종긋 세우고 남이 농약 친다면 나도 사용한다. 남이 좋다면 꼭 사용해보는 것이다. 귀동냥 농법은 아픈 아프지 않은 남이 약을 먹는다면 약국에 가서 같은 약을 사서 먹는 아둔한 사람이 하는 농법이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남의 말에 속고 헛 농약 치며 고생만 하고 몸 버리는 바보 농업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농약 사용량은 늘어난다.

두 번째 이유는 친환경농업의 후퇴다. 2012년도에 비해 면적과 농가 수가 20% 낮아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병, 해충을 예방하고 방제하고 효과 좋은 비료를 사용하는 기술 부족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레몬 하우스 3000평, 극조생, 조생 노지감귤 1만평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오남종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지부장이 '농약 쓰며 농사지으려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서 임도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친환경농업에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지 새겨들을 만하다. 제주농업에 사용하는 농약의 실상을 알면 제주가 청정하다는 말을 쓰기가 부끄럽다. 2년 전 모 신문사 기사가 사실이라면 전기차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은 정책과 기술과 농업인 노력이 함께 돌아가는 튼튼바퀴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열린마당

“해경은 오늘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27분쯤 제주 시 탐동 라마다호텔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 가까운 제주파출소 해양경찰관들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작업 준비를 시작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나 역시 구조장비를 지참, 바로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해양경찰교육원과 경찰서에서 배운 훈련 덕분에 있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있었을까? 나는 물에 뛰어든 지 3분이 만에 익수자와 반려모 2마리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바다에서 누군가 구조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해양경찰은 언제든 물속으로 뛰어 들겠지만, 언제나 구조

에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다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해양경찰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인명구조 성공률 100%를 위해 오늘도 훈련하고 있으며, 이번 라마다호텔 앞 해상 익수자의 성공적인 구조도 그동안 반복해 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으로 일궈 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매일 인명사고와 선박 화재, 좌초, 침몰, 전복, 해양오염 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유 중인 각종 장비사용법과 로프 구조술, 응급처치술 등의 훈련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바다에서 소중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해양경찰을 발견하신다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와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내 집 마련 꿈 실현 발판 마련할 것”

원 지사, 제주형 주거정책 다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도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발판을 놓겠다”고 약속. 원 지사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삼도2동 행복주택에서 지난10일 입주 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직 집 없는 분들이(도민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며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많이 지어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 이어 “임대주택 1만호 목표 중 7000호 가까이 계획을 확정했다”며 “부지 확보 등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주개발공사 등과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이상민기자 “선열들 꿈, 아이들 삶 돼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1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내고 “아이들이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와 평화-인

권교육을 충실히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선열들의 꿈은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굳건히 연대하며, 102년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 이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하나되는 대한민국”의 좌표를 따라 아이들과 따뜻하게 손잡고 걸어가겠다”고 역설. 오은지기자 신임이 다니기 힘든 제주해경 ○...제주해경이 신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더니 난감한 결과가 도출. 제주해경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1년 미만 근무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에 이르는 직원이 조직문화가 ‘경직’됐다고 응답.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사에서 상관의 욕설, 폭언 등 갑질 행태를 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정의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권위주의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조직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사설

재확산 우려 높아 방역 고삐 바짝 죄야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따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단 하루를 제외하면 이따들어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다. 게다가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 발생했다. 하루에 확진자가 8명 이상 나온 것은 이따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9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새 15명이 감염된 것이다. 올해 1월 13명, 1월 31일 10명, 1월 6일 9명, 1월 4일 8명에 이어 확진자 수가 많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설상가상으로 도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근무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양성 판정 이전까지 제주시 모 종합병원을 오가며 일했는데 병원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이 확진자의 동선으로 지목된 해당 병원 1개 병동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가족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방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 감염자도 덩달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따들어서 지난 7일까지 1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17명 중 16명이 입도객이거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됐다. 제주 관광산업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반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 걱정을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할 것이다.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넘으면서 ‘방역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숲속의 제주’ 사업 가속... 시민과 동반을

제주시의 ‘숲속의 제주’ 만들기 사업이 예상보다 빠른 진전에 녹색도시로 거듭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나무심기 물량을 식재, 사업 조기 마무리가 예상된다. 해마다 강한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위기의 대응전략으로 환영할 만하다.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적인 만큼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나아가 갈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도시 숲 조성에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녹색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더 알리는 작업 등이 병행돼야 한다. 제주시 ‘숲속의 제주’ 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0만 그루 나무를 심어 오는 2028년까지 500만 그루 식재로 다양한 기능의 숲을 도시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첫 해 56만 그루 식재에 이어 지난해 58만 그루를 심었다. 올해는 사업비 74억원을 들여 총 60만 그루 식재로 사업

가속화에 나섰다. 시는 현 추세 감안시 매년 5% 물량을 상향 조정해 오는 2026년이면 519만 그루를 식재,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사업달성을 점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 온난화로 폭염, 미세먼지 등에 의한 시민 삶의 질 저하는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기후상황에 맞춘 ‘숲속의 제주’ 사업의 조기 완료 시사는 분명 희소식이다. 시는 현 시점에 사업 달성에 만연해진 안된다. 사업 내용·성과면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제 효과를 내기 힘들다. 제주시민들이 ‘숲속의 제주’ 만들기 사업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도시 곳곳 조성되는 도시 숲을 알고, 나무를 키우는 일에 함께하는 할 계획이다. 첫 해 56만 그루 식재에 이어 지난해 58만 그루를 심었다. 올해는 사업비 74억원을 들여 총 60만 그루 식재로 사업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문민(향년 4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4월 12일 부인 이진미 아들 김경환 경민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강부철 \*최후주소: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25(하천리) 상거자는 2020년 12월 3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4월 7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1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락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25(하천리) 2021년 4월 12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에경, 강근복, 강재원, 강명진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관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검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급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공진, 홍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블, 금금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 농촌진흥청 통상상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상훈(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4월 12일 아들 김형주 며느리 김경림 형도 딸 김미정 사위 김충석 성미 강덕화

태양광 설치 ◎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 건물(상업용) ◎ 발전사업 & 유지보수 ◎ 폐 태양광 철거 & 리파워링 Haenuri Energy Co., Ltd. (주)해누리에너지 http://해누리에너지.com T. 712-8081